

北 일방적 회담중지 통보에 신중 접근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서 이구동성 '신중대처' '의중 파악 먼저' 복합적 상황 고려해 정확한 분석 우선...북미회담 영향엔 촉각

북한이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가운데 청와대가 의중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은 유지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히자 국가안보실은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신속히 대응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벽에 상황이 발생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외교·국방부 등 관련부처 분들과 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논의를 했다"며 "우선 북한이 보내온 진통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공중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를 관문점 선언 정신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명분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



켜볼 것"이라고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맥스 선더' 훈련을 고위급회담의 중지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미 지난 11일부터 훈련이 시작됐었고 별다른 반응 없이 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최근 출판과 그에 따른 대외활동이 북한을 자극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통신은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관문점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며 우리 정부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

다. 이와관련 김동업 경남대 국동문 제언구소 교수는 "최근 우리 언론에서 북한 여중원들의 기괴 탈북이나 복속이나 등으로 논란 등을 일으킨 것이 일조했고 지난 14일 태영호 공사의 국회 증언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한바디 안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본질적인 이유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방부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앞두고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훈련 규모 축소 등

을 요구하지 않은 데서 회담연기의 배경을 찾았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북미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것(훈련 규모)을 좀 줄이지는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안 했고 청와대도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됐다. 이걸 미리 알아서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한 것도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우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인의 화살을 우리 당국으로 돌리고 있는데다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선불리 대응했다는 지적 관을 그칠 수 있다는 인식도 신중론에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의견의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점도 급히 흘러가는 상황 전개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는 현재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핫라인 통화를 깊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노형태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1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도지사

“40년 특정정당 전남정치, 바꾸겠다”

정의당 노형태 전남지사 출마

정의당 노형태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16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노 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년 가까이 특정 정당의 의해 전남의 정치가 좌우되면서 지역의 정치와 행정에는 수 없이 많은 비리와 폐가 켜켜이 쌓여 있다"면서 "정의당이 전남에서부터 지역 정치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전남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절벽과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라며 "전남을 일지러가 많고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곳,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 행복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위탁을 포함해 공공기관부터 빠르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농민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월 1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하고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를 최대한 억제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어린이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정의 병원비와 실손보험 가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GMO-우레탄 없는 '3무(無)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고도 기대수명이 가장 낮고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하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면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의 거점이 될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대규모 국가산단단지 가 있는 여수과 광양에 산업재해전문병원을, 장흥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해 전남의 공공의료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흥 출신인 노 후보는 정의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겸 정의당 평화로운한반도본부 부본부장이며 민주노동당 차명연 광주·전남 사무국장 겸 장흥군 농민회 사무국장, 정의당 농민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정환 기자

정현복, 광양시장 재선 도전...“열심히 일할 것”



정현복(67) 전남 광양시장이 지난 4년 재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

거에서 무소속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정 시장은 15일 광양시청 열린홍

어린이테마극 건립 핵심 공약

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 30여 명이 지켜본 가운데 광양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면서 "믿고 따라준 시민과 공직자들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6기 실적으로 ▲예산 1조 원 시대 ▲기업체 160개 유치 ▲안정적일자리 1만2000개 증가 ▲투자유치 3조1000억 원 ▲어린이보호육재단 설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정부의 여성친화도시 인증 ▲도림미술관·예술관 유치 ▲희망도서관·용강도서관 개관 등을 꼽

았다. 정 시장은 "열심히 일했음에도 광양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있다"면서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4년간 반드시 채워질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중마·금호 권역 해변공원 조성 ▲삼진강 뱃길 복원 및 마리나항 개발 ▲택지개발 가속화 ▲4차산업 유치 등을 내세웠다.

특히 정 시장은 "15만 광양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달인, 예산전문가로서 추진력 있는 깨끗한 정현복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현복 시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 앞서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문희상, 민주20대 하반기 국회의원 후보 선출

제20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16일 6선의 문희상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총 116표 중 문 의원이 67표, 박 의원이 47표를 얻었다. 무효표는 2표다.

문 의원은 당선 소감으로 "정치한 지 40년인데 그동안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벌이면서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생각이 든다"며 "애초에 얼굴 큰 사람 뽑자,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뽑



자 했으면 걱정을 덜었을 텐데 가슴 깊이 우려 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농담을 섞으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국가가 썩어 살았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산다. 다시 서는 국회, 국민 사랑과 존경받는 국회를 만드는 이뤄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